

[노벨상 시상식 개막연설]

국왕 폐하, 왕실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노벨 재단을 대신하여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본 시상식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과학과 문학 분야에 기여한 뛰어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오슬로에서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50년 이상 지속된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결연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학과 인도주의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나 단체 혹은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 각 개인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95년에 남긴 유언에서 국적은 절대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인 역시 태어난 곳은 스웨덴이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 산레모 등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5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온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노벨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것의 가치를 굳게 믿은 진정한 세계인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9세기 말 새로운 정치적 개념들이 출현하던 당시 '신계몽'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때에는 낙관론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최되던 만국박람회, 에펠탑 등 화려한 구조물, 올림픽처럼 평화로운 국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기장 등에서 이러한 낙관론이 잘 드러나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산업화와 기업 활동으로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군사적 위협이 활개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참혹한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19세기 말에 겪었던 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금의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수십억 명이 세계화와 국제 무역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굉장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작가와 시인들은 어려운 실존주의적 사안에 대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벨상을 통해 바로 이러한 업적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알프레드 노벨이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전세계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테러를 겪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국제 협력과 국가간 이동 및 국경 개방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문제처럼 과학과 지식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지식과 과학적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표를 얻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만연하여 정치적으로 중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과 사실, 지식에 보내는 신뢰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이 현재의 암울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노벨상이 중요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이들에게 보답하고 싶어했습니다. 모범적 사례의 힘을 이해했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남긴 유언의 골자입니다. 훌륭한 롤 모델은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일이 가능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용기 있는 각 개인이 기꺼이 선두에 서서 해결책을 찾고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노벨상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와 그들이 인류를 위해 이룬 업적을 통해 사람들이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배움과 고민, 질문을 독려할 수 있는 공공 활동을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며칠 동안 1억 명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인정받게 된 과학적 그리고 인류주의적 발전에 엄청난 관심이 몰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벨상의 건물인 새로운 노벨센터가 이 곳 스톡홀름에 곧 세워지게 되어 기쁩니다. 노벨센터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훌륭한 이야기와 업적이 전시됩니다. 또한, 교육과 지식,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의 발판이 되어 미래의 주요 어려움을 토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까뮈는 “17세기는 수학의 시대였고, 18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였다. 지금 20세기는 두려움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초입에서는 두려움이 점차 커져 나갔고, 대립이 크게 자리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묘사될 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희망을 가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식을 추구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벨상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후 120년에 남긴 실로 위대한 유산입니다.

국왕 폐하, 왕실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